

# 철학자들은 식탁에서 뭘 먹고 어떤 이야기 나눌까



오랫동안 인류는 식량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산업화가 답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 뉴욕에서 발행되는 잡지 '폭' (1906년 7월호)에 실린 일러스트레이션. <갈라파고스 제공>



## 철학자의 식탁

노르망 비야르종 지음, 양영란 옮김

철학자의 식탁/노르망 비야르종 지음, 양영란 옮김



페르시아 시인이자 철학자인 오마르 하이얌 (1048-1131)은 와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와인은 우리에게 우리의 젊음을 돌려주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며 우리가 욕망하는 것을 준다. 와인은 불의 격랑처럼 우리를 불태우나 그와 동시에 우리의 슬픔을 시원한 한줄기 물로 바꿔주기도 한다.”

오마르 하이얌에게 와인은 매우 중요한 음식이었다. 사람들은 음식에 관한 저마다의 관점이 있다. 물론 철학자나 수학자, 공학자, 예술가 등도 마찬가지다.

음식을 둘러싼 철학자들의 생각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제목부터

이색적인 ‘철학자의 식탁’은 ‘먹고 요리하고 이야기하는 일의 즐거움’을 다룬다. 노르망 비야르종 몬트리올 퀘벡 대학교 교수는 맛을 철학이라는 테이블에 펼쳐놓고 독자들을 초대한다.

과연 철학자들은 무엇을 먹고 어떤 대화를 나눌까. 다른 무엇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했던 공리주의는 채식주의와 어떻게 만날까. 나아가 ‘잘’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지금까지 ‘식(食)’과 ‘맛’은 감각적이라는 이유로 그다지 철학 주제로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철학자들도 일반인처럼 음식을 먹고 맛을 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과연 철학자들은 먹는다는 행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책은 독자들을 매우 특별한 애찬(愛餐, 다른 말로는 아가페·식사)이자 지적이면서 동시에 감칠맛까지 겸비한 연희로 초대한다. 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이 책이 독자들이 하여금 철학자들과 더불어 섭생과 관련 있는 여러 주제들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저자에 따르면 ‘식탁에 관한 칸트의 철학적 단상’은 이렇다. 칸트는 되도록 식사는 혼자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봤다. 주변을 뺀다고 식탁에 앉은 수는 3명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9명보다 많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4명에서 10명 정도가 이상적이다. 특징이 자신만의 얘기를 독점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식탁의



프랑스 스니더스가 17세기에 그린 ‘부엌에 있는 하녀와 어린 소년’ <갈라파고스 제공>

대화는 놀이의 차원이기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장 자크 루소가 활동할 당시의 철학자 앙텔름 브리아 사바랭은 먹는 즐거움을 설파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요리예술’

의 예술성에 주목하는 것과 달리 그는 먹는 행위와 식탁에 앉는 행위를 구분한다. 식사 시간은 기다리고, 먹고, 음미하는 등의 모든 시간이다.

플라톤은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를 매우 중요시 여겼다. 그의 저서 중에는 요리와 관련된 은유가 자주 등장하며 섭생이나 음식 준비 부분도 할애돼 있다. 그럼에도 플라톤은 요리 자체에 대해서는 “생명체에게 자양분이 되는 배움에 토대를 둔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비판적 입장이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게 경직된 접근이 아닌가 싶다)

철학자의 식성에 관한 부분도 등장한다. 사르트르는 해산물을 매우 싫어했다. 그렇다고 채소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다. 사람이 직접 요리하지 않은 음식에 크게 호감을 갖지 않았다.

이밖에 책에는 채식, 금식, 식탐과 같은 주제도 담겨 있다. 음식과 식사를 다양한 철학적 관점과 연계해 들여다볼 수 있다. 책을 읽다보면 먹는 즐거움은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이자 문화적 행위라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

“테이블에서의 즐거움은 모든 나이와 사회적 조건을 초월하고 시공간을 가리지 않는다. 이 즐거움은 다른 모든 즐거움과 결합할 수 있으며 그 모든 즐거움이 사라질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를 위로해준다.” <갈라파고스·1만72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렉시콘

미국의 어느 아카데미에서는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언어의 힘과 타인을 조종하는 법을 가르친다. 졸업시험을 통과한 이들은 시인으로 불리며 버지니아 울프와 같은 유명 작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 길거리에서 카드 게임과 속인수로 생계를 꾸려가던 에밀리라는 소녀는 어느 날 아카데미 관계자의 눈에 띈다. 그녀는 입학시험을 치르고 시인이 되기 위한 수련을 시작한다. 언어를 모티브로 한 소설은 다른 소재와 달리 흥미로운 점이 많다. 언어를 통해 사람의 심리를 조종하거나 특수한 어휘를 토대로 사건을 구조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를 소재로 한 이색적인 소설이 발간됐다. 그동안 기업, 게임 등 다양한 소재를 다뤄왔던 호주의 SF 작가 맥스 배리가 쓴 ‘렉시콘’이 그것. 한마디로 언어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시인’들의 음모와 추격전을 다룬 소설이다.

사전적 의미의 ‘렉시콘’은 특정 언어나 주제, 분야에서 쓰이는 단어들의 모임을 뜻한다. 워싱턴 포스트는 “매끄러운 구성, 눈을 땔 수 없는 스티플러”라고 격찬을 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어둡고 매혹적인 디스토피아 작품”이라고 평했다.

소설은 에밀리가 비밀스러운 아카데미에 들어가 타인을 지배하는 ‘시인 수업’을 듣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곳에서 시인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누군가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타인을 자신의 의도대로 지배하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가 최대한 이편의 감정을 자제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목수인 윌이 공항 화장실에서 문의 집단에게서 총격을 당한다. 집단의 남자들은 윌에게 “넌 개를 좋아해. 아니면 고양이 좋아해?”와 같은 이상한 질문을 던진다. 왜 습격을 당했는지 알지 못하는 윌은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다가 시인과 맞닥뜨린다. <열린책들·1만7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초고속 부자들의 내공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길 원한다. 경제적 자유와 어디든 거주할 수 있는 자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는 상당 부분 물질적 여유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것도 젊은 시절 막대한 부를 창출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초고속 부자의 내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자산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이자 (주)라디안 큐바이오 마케팅 총괄이자 함성일 씨가 펴낸 ‘초고속 부자들의 내공’은 자신의 투자 경험과 젊은 사업가, 자수성가형 사업가의 사례를 토대로 부자 되는 노하우를 담았다.

저자는 무엇보다 부자의 지름길 사업을 주목하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 사업이나 해서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미다. 두 번째 내공은 돈의 철학과 축이다. 저자는 “초고속 부자들은 돈에 대한 철학이 매우 뚜렷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견지하며 돈의 흐름에 대한 동물적인 촉을 가지고 있다. 돈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며 돈의 흐름을 쫓는 축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덧붙인다.

다음으로 독서와 공부도 중요한 요인이다. 자수성가 백만장자의 첫 번째 습관이 독서이며, 인문학 공부는 남이 못 보는 틈새를 포착하게 해주는 렌즈라고 설명한다. 기획과 실행력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기획 아이디어가 있다면 생각하고 동시에 바로 실행에 옮기는 과단성이 필요하다.

<나비의 활주로·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우리는 수평선상에 놓인 수직일 뿐이다

수능이 끝나고 대한민국의 모든 고 3이 대학 원서 접수를 준비할 때 배낭을 메고 인천공항에 선 열아홉 살 남학생이 있었다. 대학 대신 여행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인도 여행을 시작으로 약 2년 반 동안 세계여행을 했다. 이후 여행을 담은 ‘우리는 수평선상에 놓인 수직일 뿐이다’를 펴냈다.



‘대학 안 가고 300일 넘게 여행한 사람’은 저자 이원재씨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여행하는 고등학생’으로 다큐멘터리 출연해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혹자는 현실 도피가 아니냐며 따귀운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지만 그에게 여행은 왜 봐야 하는지 몰랐던 수능보다 더 치열한 고민의 답이었다. 대학 진학과 스펙 그리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매뉴얼 같은 삶에 편승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책은 낭만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저자의 세계여행기를 담았다. 몽골, 러시아, 폴란드, 콜롬비아, 페루, 모로코 등 28개국을 돌아다니는 저자의 여행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세계를 떠도는 배낭여행자들이 대개 그렇듯 그는 가난한 여행자였고, 가난한 여행자에게 여행은 현실이었다. 바가지를 씌우려는 현지인들과 실랑이를 벌여야 했고, 말도 안 통하는 타지에서 히치하이킹은 일상이었으며, 좁아터진 버스에서 찌그러진 만두가 되는 한이 있어도 장시간 이동을 견뎌야 했다.

저자는 “우리는 여행이 마냥 즐겁기만을 바라지만 실제 여행에서 밧박뜨리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과 당혹스러움이다. 그래서 여행은, 특히 혼자 하는 여행은 더욱 막막하게 다가온다”며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뿐 아니라 외로움의 무게까지 감싸 안는다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푸른길·1만6000원>

/전재재 기자 ejf621@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성수목장**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군 노동면 소재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 1522-9341